

간호대 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복합적 효과

박민정*, 최동원**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

Min-Jeong Park*, Dong-Won Choi**

Dep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학생의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서, 연구대상은 K와 I지역에 소재한 간호대 신입생으로 실험군 44, 대조군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은 도입단계, 자아탐색단계, 직업세계탐색단계, 진로설계단계 및 종결단계로 구성하여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1주에 2시간씩 총 12주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측정하였고, SPSS WIN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학습동기($t=8.92, p<.001$)와 대학생활적응($t=3.51, p<.001$)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생들의 대학적응과 학습동기 유발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간호대 신입생뿐만 아니라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간호 학생, 교육, 적응, 동기,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CEP) on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A non-equivalent pre-post test of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44 freshmen were assigned to an intervention group and 36 freshmen to a control group. The intervention program was composed of introduction, self-navigation, explore the world of work, career design and termination during 12 weeks from March to June, 2014. Data were collected before-and after program,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learning motivation ($t=8.92, p<.001$)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3.51, p<.001$)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suggests that CEP would be an efficient way to adapt to school and take learning motivation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and tailored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from a freshmen to a senior.

Key Words : Nursing students, Education, Adapt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Received 26 February 2017, Revised 30 March 2017
Accepted 20 April 2017, Publish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Dongwon Choi
(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Email: dionia@icc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청소년 후기로서 자아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진로 등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훈련과정을 거쳐 그 직업에 입문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입생부터 진로선택과 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한 대학생활 적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4년제 대학생들의 36.7%가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였고, 학점위주의 수업과정과 자격증 위주의 수험준비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등을 탐색할 시간이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하여 졸업 후에도 50.0%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1,2,33,34].

간호학과 의 경우도 간호사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타 전공에 비해 높은 지원율과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타 분야 학생과 마찬가지로 전공 과정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성적과 상황에 맞춰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학생이 늘고 있다. 간호대 신입생들은 자동적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로 진로를 선택하여 대학시기 동안 본인의 적성과의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고 간호교육 과정의 과중한 학습량에서 오는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4]. 뿐만 아니라 상급학년 시 진행되는 임상실습에서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역할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접하고 있다[3,4]. 이러한 간호교육과정에서의 과중함으로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학과 부적응을 경험함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 적응여부는 학업적응과 대인관계 적응에 의해 결정되는데 학업적응은 성적, 학점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습동기 형성과 관련이 있다. 학습동기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교학습을 위해서 학교수업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에 대해서 주의력 집중, 적절성, 신뢰성, 호기심, 도전감, 만족감, 기대감, 참여성에 대한 신념과 의욕적인 노력의 정도이다[5].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해 열정적이고 흥미, 관심 및 호기심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6],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

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하게 된다[7].

학업적 동기와 함께 자기효능감도 학업성취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주장되고 있는데[8], 자기효능감은 목표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9]. 대학생활과 학업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학생생활적응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10].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과 지식의 증가와 같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게 되어 이러한 학교생활과 학업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4,9].

이상에서 제기된 적응문제들의 해결을 돕고 궁극적으로 대학졸업 후 자신에 맞는 직업선택이라는 대학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탐색능력의 개발로 구성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특히 신입생 중에는 성적에 맞추어 학과나 대학을 선택한 결과로 인해 숙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 후 진로와 직업이 결정되어 직업관에 혼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시기는 적절한 진로 지도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12]. 최근 국가적으로 대학평가 항목에 진로적응교육을 포함시켜 많은 대학에서는 진로 및 취업캠프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로지도의 의무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학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취업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져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물론 학년과 전공의 다양성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진로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처럼 특수성이 요구되는 학과의 경우 이를 고려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공별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진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 입학 이전의 학생이 대상이고, 일부 간호대학생 및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진로정체성 등 진로와 관련된 변수에 국한되어 있고 학습과 대학 적응 등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검증한 논문은 미미한 상황이다 [2,11,13,14]. 따라서 간호대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지를 조사하여 융합적인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간호대 신입생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의 제공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융복합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신입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2)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신입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 후 학생의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C1, E1 (Pretest): school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self-efficacy
 C2, E2 (Posttest): school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self-efficacy
 X: Career education program

2.2 간호대학 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Career Education Program)의 개발과 적용

간호대학 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은 K대학의 An, Jeong, An, Chu, Gil, Kim과 Go[16]가 개발한 '비전 있는 대학생활'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참여할 간호학과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상경력 5년 이

상의 간호학과 교수 3인과 진로전문가 1인 및 병원 간호팀장 1인의 자문을 2차에 걸쳐 구한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신입생들이 간호영역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토론, 강의식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학도로서의 효능감과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대학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 책임교수의 주도 하에 세부 프로그램 별로 간호학과 선배 및 졸업생이 촉진자 역할도 하였고 이를 통해 신입생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적응 및 진로불안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의와 토론 및 체험을 배분한 통합적 구성을 통해 신입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입단계, 자아탐색단계, 직업세계탐색단계, 진로설계단계 및 종결 단계로 구성하여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1주에 2시간씩 총 12회기로 진행되었고 매 과정마다 '나의 성찰일기'를 작성함으로써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Table 2>.

도입단계에서는 진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학생들도 자신을 소개하고 팀을 구성하여 팀명과 팀구호를 정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갖도록 하였다. 자아탐색단계는 온라인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단계로 강점재능 발굴하기, 고유성격 탐험하기, 직업유형 찾아내기 3단계로 구성하였다. 강점재능 발굴하기는 온라인 검사를 통해 음악재능, 대인재능, 언어재능, 운동재능, 공간재능, 성찰재능, 논리재능 및 자연재능 중에서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확인하고 간호 분야에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였다. 고유성격 탐험하기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확인하고 간호의 대상이 되는 타인과 나는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대상자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유형 찾아내기에서는 현실형, 사회형, 탐구형, 진취형, 예술형, 관습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간호직 유형의 특성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서 실시한 강점재능과 고유성격 및 직업유형의 검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간호 분야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였다.

직업탐색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직업 중에서 자신만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심진로 탐

<Table 2> The composition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Stage	Session	Subject	Contents
Introduction	1	Orientation	Orientation and pre-briefing about the program Pretest
	2	Strengths talent search	Confirm my strengths talent through the strengths talent test
Self navigation	3	Personality type search	Confirm my personality type through the personality type test
	4	Career type search	Confirm my career type through the career type test
Explore the world of work	5	Explore career interests	Introduction of career roadmap for nurse Discuss your interesting career as a nurse
	6	Dialogue with nursing senior	Discussion on university life with nursing senior
	7	Promising career selection	Selection of five promising career as a nurse My core value extraction as a nurse
	8	Own career selection	My own promising career selection that reflects the core values as a nurse
Career Design	9	Writing career mission statement	Writing career mission statement through my own promising career as a nurse
	10	Creating behavioral goals	Creat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behavioral goals Establishment of action plan for studying & the future during the university time.
	11	Business day for me	Learning how to manage the time
Termination	12	Vision declaration ceremony	Writing a letter to present me and vision declaration ceremony posttest

색하기, 선배와의 대화, 유망 직업 선정하기, 나만의 직업 선정하기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관심진로 탐색하기에서는 간호학과와 진로 로드맵과 간호학과 졸업 후 진출 할 수 있는 유망직종을 소개하였고 팀원들이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얻어진 정보를 서로 공유하였다.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간호사 선배 멘토를 초대하여 함께 대화함으로써 간호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생활 중에 달성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유망직업 선정하기에서는 앞에서의 과정을 토대로 간호 분야에서 경쟁력 있고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5개 선정하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3명의 간호사의 사례를 수집하여 자신의 생각과 결합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간호사로서의 3가지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나만의 직업 선정하기에서는 앞서 선택된 간호 분야의 직업 5개와 자신이 도출한 간호사로서의 3가지 핵심가치를 나열한 후 앞서 시행된 강점재능, 고유성격 및 직업유형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나만의 유망직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진로설계단계에서는 나만의 유망직업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사명서 작성하기, SMART행동목표 수립하기, 나를 위한 하루경영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직업사명서 작성하기에서는 나만의 유망직업을 통해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분명히 한 후 간호사로서의 3가지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직업사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여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SMART 행동목표 수립하기에서는 1년(단기), 5년(중기), 10년(장기)의 SMART (Specific, Measurable, Action-oriented, Realistic, Time-limited)한 학습 및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생활 4개년 실천계획을 학습부분과 자기개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 나를 위한 하루경영에서는 시간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종결단계에서는 4년 후 간호사인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고,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자신의 비전을 공포하고 축하퍼포먼스를 통해 서로의 비전선포를 축하하며 그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전체과정을 마무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Kim[5]이 개발한 학교학습동기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외적동기, 내적동기, 수업동기, 계속동기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5문항 5점 척도로(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5]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18]가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ACQ)을 바탕으로 이은우[1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5문항 5점 척도로(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18]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95이었고, Lee[19]의 연구에서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Kim[17]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4문항 5점 척도로(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Kim[17]의 신뢰도는 각 영역별로 Cronbach' α 가 .80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로 .79이었다.

2.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K지역과 I지역 소재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80명이었다. 표본수는 Cohen[15]의 검정력 분석과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G Power 3.1.2 program에 따라 두 집단의 비교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5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3명을 필요로 하였다. 탈락율을 고려하고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K 지역 간호대생 44명을 실험군으로, I 지역 간호대생 36명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탈락 없이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시키고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연구자에 의해 직접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이득,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2014년 3월에, 사후 조사는 2014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만 적용되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연구참여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양측검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혹은 Independent t-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중재 전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적응의 평균 차이에 대한 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후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 특성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간호대 신입생으로 실험군 44명, 대조군 36명이었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18.32세, 대조군은 18.50세였으며, 두 집단 모두 여학생이 86.4%(38명)과 88.9%(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동질성 검정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종교, 한 달 용돈, 간호학과 선택, 학교생활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 본인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동질성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 efficacy,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44)	Cont.(n=36)	t or χ^2	p
		n(%) or M \pm SD	n(%) or M \pm SD		
Age(yr)		18.32 \pm 0.60	18.50 \pm 0.70	-1.25	.214
Gender*	Male	6(13.6)	4(11.1)	0.12	1.000
	Female	38(86.4)	32(88.9)		
Religion	Yes	20(45.5)	21(58.3)	1.31	.252
	No	24(54.5)	15(41.7)		
Allowance	\leq 300,000 won	35(79.5)	26(72.2)	0.59	.444
	$>$ 300,000 won	9(20.5)	10(27.5)		
Select Nursing*	Parental recommendation	10(23.3)	10(27.8)	1.62	.836
	Teacher's recommendation	2(4.7)	1(2.8)		
	Self-select	31(72.1)	25(69.4)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2.3)	0(0.0)	6.11	.052
	Ordinary	12(27.3)	19(52.8)		
	Satisfaction	31(70.5)	17(47.2)		
Relationship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6.8)	1(2.8)	4.46	.165
	Ordinary	9(20.5)	14(38.9)		
	Satisfaction	32(72.7)	21(58.3)		
Health status	Good	30(68.2)	29(80.6)	4.55	.105
	Ordinary	9(20.5)	7(19.4)		
	Poor	5(11.4)	0(0.0)		
Distress	None	15(34.1)	20(55.6)	5.13	.274
	Economic	10(22.7)	8(22.2)		
	Conflict with parents	1(2.3)	0(0.0)		
	Course	10(22.7)	5(13.9)		
	Etc.	8(18.2)	3(8.3)		
Self efficacy		3.95 \pm 0.43	4.12 \pm 0.46	-1.72	.089
	Confidence	3.73 \pm 0.71	3.99 \pm 0.74	-1.56	.122
	Self regulation efficacy	4.33 \pm 0.43	4.49 \pm 0.40	-1.73	.088
	Subject degree of difficulty preference	3.34 \pm 0.89	3.43 \pm 0.78	-0.44	.661
School learning motivation		3.31 \pm 0.46	3.41 \pm 0.48	-0.94	.350
	External	3.58 \pm 0.53	3.70 \pm 0.49	-1.03	.306
	Internal	2.99 \pm 0.55	3.23 \pm 0.63	-1.82	.073
	Instructional	3.52 \pm 0.50	3.48 \pm 0.55	0.37	.712
	Continuing	3.33 \pm 0.54	2.96 \pm 0.57	1.96	.054
College life adaptation		2.85 \pm 0.23	2.94 \pm 0.36	-1.45	.150
	academic	3.38 \pm 0.40	3.75 \pm 0.45	-1.90	.061
	social	3.18 \pm 0.41	3.02 \pm 0.47	1.62	.109
	emotional	2.45 \pm 0.66	2.37 \pm 0.88	0.41	.681
	physical	2.81 \pm 0.51	3.07 \pm 0.70	-1.91	.060
	Attachment to university	3.03 \pm 0.35	3.23 \pm 0.34	-1.81	.074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3.2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 점수에 대한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결과 학습동기($t=0.17$, $p=.868$), 대학생활적응($t=-0.94$, $p=.350$) 및 자기효능감($t=-1.72$, $p=.089$)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동기의 하위영역인 외적동

기, 내적동기, 수업동기, 계속동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Table 3>.

3.3 진로교육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효과

3.3.1 학습동기

중재 후 학습동기수준은 실험군이 3.58점, 대조군은 3.00점으로 실험군은 중재 후 평균 0.27점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중재 후 평균 0.41점이 감소하여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03, p<.001$). 학습동기의 하위영역인 외적동기($t=11.43, p<.001$), 내적동기($t=5.99, p<.001$), 수업동기($t=3.83, p<.001$), 계속동기($t=-2.94, p<.005$)에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3.3.2 대학생활적응

중재 후 대학생활적응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3.04점, 대조군이 2.86점으로 실험군은 중재 후 평균 0.20점이 증

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후 평균 0.09점이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58, p<.001$).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적응($t=3.97, p<.001$), 정서적 적응($t=2.63, p=.010$), 신체적 적응($t=4.04, p<.001$)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는 중재 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3.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의 경우 중재 후 평균 4.13으로 중재 전에 비해 0.18점이 증가하여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군 간 비교에서 대조군은 4.17점으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on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p)	Difference	t(p)
		Mean±SD	Mean±SD		Mean±SD	
School learning motivation	Exp.(n=44)	3.31 ± 0.46	3.58 ± 0.42	-5.07(<.001)	0.27 ± 0.35	9.03(.001)***
	Cont.(n=36)	3.41 ± 0.48	3.00 ± 0.45	7.85(<.001)	-0.41 ± 0.32	
External	Exp.(n=44)	3.58 ± 0.53	3.96 ± 0.47	-5.98(<.001)	0.38 ± 0.43	11.43(.001)***
	Cont.(n=36)	3.70 ± 0.49	3.08 ± 0.52	10.89(<.001)	-0.62 ± 0.34	
Internal	Exp.(n=44)	2.99 ± 0.55	3.26 ± 0.58	-3.45(.001)	0.26 ± 0.51	5.99(.001)***
	Cont.(n=36)	3.23 ± 0.63	2.77 ± 0.50	4.81(<.001)	-0.46 ± 0.58	
Instructional	Exp.(n=44)	3.52 ± 0.50	3.76 ± 0.45	-3.15(.003)	0.24 ± 0.50	3.83(.001)***
	Cont.(n=36)	3.48 ± 0.55	3.29 ± 0.58	2.31(.027)	-0.19 ± 0.49	
Continuing	Exp.(n=44)	3.33 ± 0.54	3.19 ± 0.50	1.87(.069)	-0.14 ± 0.50	-2.94(.004)**
	Cont.(n=36)	2.96 ± 0.57	3.19 ± 0.50	-4.49(<.001)	0.23 ± 0.31	
College life adaptation	Exp.(n=44)	2.85 ± 0.23	3.04 ± 0.28	-4.76(<.001)	0.20 ± 0.27	4.58(.001)***
	Cont.(n=36)	2.94 ± 0.36	2.86 ± 0.28	1.90(.066)	-0.09 ± 0.28	
academic	Exp.(n=44)	3.38 ± 0.40	3.65 ± 0.37	-3.35(.002)	0.26 ± 0.52	3.97(.001)***
	Cont.(n=36)	3.75 ± 0.45	3.57 ± 0.45	2.32(.026)	-0.18 ± 0.47	
social	Exp.(n=44)	3.18 ± 0.41	3.20 ± 0.42	-0.42(.676)	0.02 ± 0.36	-0.99(.325)
	Cont.(n=36)	3.02 ± 0.47	3.13 ± 0.49	-1.52(.138)	0.11 ± 0.44	
emotional	Exp.(n=44)	2.45 ± 0.66	2.76 ± 0.65	-3.22(.002)	0.32 ± 0.66	2.63(.010)*
	Cont.(n=36)	2.37 ± 0.88	2.28 ± 0.69	0.73(.469)	-0.09 ± 0.73	
physical	Exp.(n=44)	2.81 ± 0.51	3.10 ± 0.52	-3.26(.002)	0.28 ± 0.57	4.04(.001)***
	Cont.(n=36)	3.07 ± 0.70	2.84 ± 0.59	2.50(.017)	-0.23 ± 0.55	
Attachment to university	Exp.(n=44)	3.03 ± 0.35	3.15 ± 0.40	-1.93(.061)	0.13 ± 0.44	-0.34 (.737)
	Cont.(n=36)	3.23 ± 0.34	3.18 ± 0.35	0.85(.401)	-0.05 ± 0.35	
Self efficacy	Exp.(n=44)	3.95 ± 0.43	4.13 ± 0.54	-3.84(<.000)	0.18 ± 0.31	1.95(.054)
	Cont.(n=36)	4.12 ± 0.46	4.17 ± 0.54	-0.92(.366)	0.05 ± 0.30	
Confidence	Exp.(n=44)	3.73 ± 0.71	3.98 ± 0.86	-2.45(.018)	-3.48 ± 1.08	1.57(.122)
	Cont.(n=36)	3.99 ± 0.74	4.13 ± 0.79	-1.89(.068)	-3.84 ± 0.94	
Self regulation efficacy	Exp.(n=44)	4.33 ± 0.43	4.45 ± 0.47	-2.56(.014)	-4.21 ± 0.58	1.86(.067)
	Cont.(n=36)	4.49 ± 0.40	4.51 ± 0.47	-0.35(.725)	-4.47 ± 0.66	
Subject degree of difficulty preference	Exp.(n=44)	3.34 ± 0.89	3.57 ± 0.83	-2.27(.028)	-3.12 ± 1.33	1.39(.168)
	Cont.(n=36)	3.43 ± 0.78	3.39 ± 0.95	0.45(.656)	-3.46 ± 0.90	

*p<.05, **p<.01, ***p<.001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1.95, p=.054$). 하위영역에서도 중재 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학습동기,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비교를 통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진로교육을 통해 학습동기가 향상되었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지는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진로교육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학습동기를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5,26]. 이는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외적동기, 내적동기, 수업동기, 계속동기 향상에서도 효과를 본 바, 이처럼 학습동기는 대학 환경 속에서 대학신입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긴장 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요한 동력으로 고려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습동기는 학교생활 적응 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태도와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한 Han & Kim[27]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SMART 행동목표 작성’, ‘나를 위한 하루 경영’처럼 학습 및 행동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뚜렷한 학습방향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학습에서 성공적인 적응 경험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학습동기를 향상시킨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Hwang, Son과 Kang[1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진로탐색을 통해 학교적응의 향상 효과를 보고한 Folsom과 Reardon[20]과, 진로발달과 대학생활적응의 정적상관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들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21,22]. 이와 같은 실험군에서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은 본 연구에서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중 간호사의 직업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탐색은 물론 생애설계, 목표성취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선택한 진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행동을 촉진하게 된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취업 분야가 구체화되어 있지만 과중한 학업량과 임상실습, 과도한 과제나 업무 등으로 인해 간호 대학생이 타과학생들보다 더 많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23]. 이러한 문제는 적성의 불일치로 여겨지고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24]. 따라서 적성의 불일치로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입학 초 간호학과 적응을 위한 특성화된 진로교육이 필수교과과정으로 확대하여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의 행동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선정한 것은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영향을 준다[9]는 데서 기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한 군은 사후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오긴 했으나 대조군과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고 한 Park & Lee[14]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28,29].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의 향상만큼은 아니지만 대조군의 경우도 동일한 기간 동안 교수나 선배와의 교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에 접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일부 상승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신입생으로서 목표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표현되는 자기효능감을 평가하기에 측정시기가 다소 일렀고,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한 선행연구의 대상자들은 3학년에서 4학년 졸업반이 대부분이었음이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간호학과 학업의 과중함에 대해 진로교육을 통해 미리 알게 되어 오히려 두려움이 상승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험군에서의 유의미한 자기효능감 향상은 Lee & Kim[8]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변인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신입생의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와 같은 고무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의 과중함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학과의 긍정적 측면을 적절히 배분하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프로그램 내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은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특성화하여 개발한 것이다. 기존의 진로교육은 취업캠프, 취업특강 등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학년은 진로탐색, 고학년은 취업과 진로에 치중하여 취업스킬습득의 내용들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입생들은 기존의 진로교육에 대해 이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도 5주간 4회차의 구성 중 절반이 진로정보제공 및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및 모의면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작 신입생들이 수용하기에는 벽차게 느껴질 수 있다[25]. 앞서 기술한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취업분야가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졸업 후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다[30,31,32].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사 부족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 보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간호직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구하는 동시에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간호직에 대한 명확한 상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와 입시 제도를 거쳐 형성된 수동적인 태도가 대학생이 되어 바로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대학 신입생의 입학시점부터 제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대해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프로그램이 간호대학신입생들의 학교적응과 학습동기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가 구체화되어 있는 간호대생들이지만 이들이 본인의 특성과 간호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입학 초기부터 탐색하고 학년별로 진로에 대한 설계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본인의 선택에 만족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데 있어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지원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자기효능감에

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입생 뿐 아니라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별로 그들이 진로에 대한 설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 학년에 맞는 추가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그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진로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적응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두 학교의 2014학년도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고, 중재로 사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1개 대학에서 개발 및 운영한 것으로 그 대학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어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학습동기, 대학생활 적응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교육이 간호대학신입생들의 학습동기와 학교적응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 신입생뿐만 아니라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Home page, KRIVET Issue Brief(No. 32), [http:// 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 May 30, 2016.
- [2] S. Park,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259-267, 2012.
- [3] H. Y. Jung ,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14, No. 7, pp. 259-268, 2016.
- [4] S. J. Han, S. H. Lee,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onvergence leisure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515-523, 2015.
- [5] Y. R. Kim,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A) & school-related coping scale(B) and relations between (A) & (B)" *Hongik Research*, pp. 3-37, 2000.
- [6] S. D. Lee, "Educational effects and learners' experiences during collaborative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243-254, 2016.
- [7] J. H. Bae, H. K. Chang, "The effect of MBSR-K program on emotional response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1, pp. 637 - 688, 2006.
- [8] S. Y.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318, 2016.
- [9] A. Bandura, "Perceived self 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8, pp. 117-148, 1993.
- [10] H. Y. Song, S. H. Shi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628-640, 2016.
- [11] M, H. Hwang, M. I. Son & H. Y. Kang, "The effectiveness of a college career cours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8, No. 1, pp. 71-91, 2007.
- [12] I. S. Jang, E. H. Choi & H. J. Park, "Experience of mentoring program in newly opened nursi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6, No. 2, pp. 81-92, 2013.
- [13] S. H. Kim & M. J. Kim,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 4, pp. 407-418, 2016.
- [14] H. M, Park & H. S. Lee,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tr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8, pp. 304-31, 2015. 2009.
- [15] J. Cohen, "Statistical power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88.
- [16] H. S. An, G. S. Jeong, S. K. An, W. J. Chu, S. Y. Gil, H. J. Kim, & M. S. Go, "Planning of the campus life" *Bareun Education*; Kunsan. 2012.
- [17] A. Y.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 - tolerance and its correlate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11, No. 2, pp. 1-19, 1997.
- [18] R. W . Baker & B .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No. 1, pp. 179-189. 1984.
- [19] Eun-Woo Lee, "Impacts of the affective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p.55, Keimyung University, 2005.
- [20] B. Folsom & R. Reardon, "College career courses: Design and accountabil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1, No. 4, pp. 421-450, 2003.
- [21] K. M. Chang,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1, pp. 185-196, 2005.
- [22] M, H. Hwang & H. Y. Kang, "Career develop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8, No. 2, pp. 157-176, 2005.
- [23] DOI: <http://dx.doi.org/10.1186/1472-6955-6-11>
- [24]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Basic Inform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 [25] H. M. Park, H. S. Lee,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tr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8, pp. 304-312, 2015.

[26] H. J. Jang, E. H.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Home page, KRIVET Issue Brief(No. 101), [http:// 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 June 15, 2016.

[27] W. S. Han, J. K. Kim, H. K. Lee, “Effects of the “Motivation Semester” Program among University Freshmen : Focused on K-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7, pp. 522-530, 2013.

[28] Y. H. Kim,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 817-828, 2013.

[29] Y. H. Kim, K. E. Kim, J. H. Choi,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maturity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3, pp. 1223-1233, 2011.

[30] J. H. Kim, S. A.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a nurs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staf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8, No. 1, pp. 97-105, 2002.

[31] Jung-Ae Kim, “A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99-112, 2017.

[32] Young-Mi Kim, Sang-Nam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Experience of Turnover in new graduate nurses within one yea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97-106, 2016.

[33]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115-122, 2016.

[34] Mi-Hee H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preparation capacity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 1, pp.81-86, 2016.

박 민 정(Park, Min Jeong)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6월 ~ 2012년 8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2년 9월 ~ 현재 :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만성질환자 간호, 중환자간호학, 보건의간호학
- E-Mail : itsmedal@naver.com

최 동 원(Choi, Dong Won)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적십자 간호대학 조교수,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dionia@iccu.ac.kr